

농어촌공사 광주지사, 자연재해 비상 대처 훈련

주남현 기자 | 승인 2026.04.28 21:01

지정저수지에서 전직원등 관계자 30여 명 참여 실전 훈련



농어촌공사 및 관계자들이 지정 저수지에서 재난발생 대비 비상 대처훈련을 진행하고 있다. /사진=광주지사

| 광주=한스경제 주남현 기자 | 한국농어촌공사 광주지사는 28일 광산구 지정동 저수지에서 집중호우와 태풍, 지진 등으로 저수지 제방 붕괴에 따른 비상대처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.

이날 훈련에는 광주지사 전직원, 시·구청 및 긴급동원업체, 관계기관 등 30여명이 참석해 지역주민 대피, 제방 응급복구 등 상황별 위기대응 요령을 숙지하는 등 인명 및 재산피해 예방을 위한 실전 훈련을 진행했다.

김철상 지사장은 "응급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상황전파 등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"며 "최근 이상 기후로 집중호우 등 각종 재난발생에 대비한 실제 대응능력을 키우고, 농업인의 소중한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"고 말했다.

한편 광주지사는 약 40여개 관할 저수지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점검과 비상대처훈련을 통해 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에 힘쓰고 있다.



주남현 기자 tstart2001@sporbiz.co.kr

저작권자 ©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